

노인의 기능상태와 욕구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 이용 행태의 차이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재가 노인 중심으로 -

김 지 영, 이 지 윤, 조 영 남(이화여자대하가교 대학원)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교육수준, 동거 가족 유무, 유배우자 상태 등과 서비스 이용의사 또는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왔으나, 대상노인의 상태와 서비스이용행태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을 앞두고 어떠한 기능상태와 욕구에 따라 서비스이용행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할 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 할 때 수발관리요원(운영주체기관 소속 직원)이 서비스 지원 단계에서 대상자의 서비스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상노인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대도시(수원, 광주), 중소도시(안동, 강릉), 농어촌(부여, 제주)의 6개 지역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재가노인 중 기능상태 저하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 2005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양서비스지원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노인의 기능상태의 유형과 욕구를 시범사업에서 노인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을 확정하기 위해 활용한 51개 기능평가 항목과 등급 내 대상노인에게 케어플랜 작성을 위해 활용한 RAI-HC 도구의 MDS-HC 항목으로 파악하였다. 등급판정을 위한 51개 항목은 2003년도 공적노인요양추진기획단에서 제시한 기능상태 평가를 위한 항목 중 문항적합도 분석 등과 전문가 패널을 통해 확정되어 활용되었고, 케어플랜 작성을 위해 재방문하여 조사하는 RAI MDS-HC 항목은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욕구사정 및 케어플랜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Excel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의 측정값과 서비스 이용패키지를 입력하고,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서비스이용 행태와 기능상태 평가 항목, RAI MDS-HC 항목, RAI MDS-HC를 이용한 문제영역 유형별 차이를 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선택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각 항목과 영역이 무엇인지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주요 결과

분석 대상은 대부분 여성이면서 평균연령 78.4세이다. 대상자의 98.6%가 질병을 가진 상태이며 독거노인이 60%로 많았다. 그리고 대상자의 일차수발자는 47.6%가 자녀이며, 50%정도가 동거를 안 하는 상태로서 충고 또는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대부분 4, 5등급이며(85.5%), 최종중으로 1등급은 1.2%로 나타났다. 등급판정을 통해 각 기능영역(신체기능, 인지기능, 문제행동, 재활욕구, 간호처치)별로 중증도 정도와 수발필요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RAI-HC 도구를 사용한 결과 대상자에게 나타난 문제영역 개수는 기능평가 도구에 의한 등급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등급판정의 5개 영역 중 신체기능, 인지기능, 문제행동, 재활욕구 영역만이 서비스이용 행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간호처치 영역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체기능의 12개 항목 중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11개 항목이, 인지기능 8개 항목 중 장소에 대한 지남력 장애 1개 항목, 문제행동 10개 항목 중 정서불안, 혼자 밖으로 나가려 함 등 4개 항목, 재활욕구의 마비재활(우측상지마비) 항목이 서비스이용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RAI MDS-HC 약 260개의 항목 중 70여개의 항목이 또한 서비스이용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RAI MDS-HC 조사로 도출된 문제영역(CAPS) 30개 중 일상생활 수행과 재활가능성, 수단적 일상생활수행, 건강증진, 의사소통장애, 우울과 불안 등 7개

문제영역이 서비스 종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문간병수발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일상생활수행과 재활가능성’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단기보호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우울과 불안’과 ‘약한 지지체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는 ‘건강증진’, 주간보호서비스는 ‘일상생활수행과 재활가능성’,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건강증진’, ‘우울과 불안’, ‘사회적 기능’ 등의 문제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4. 결론

분석 결과 대상자의 장기요양보호 필요도를 측정하는 항목과 케어플랜 수립을 위한 항목들 중 서비스패키지종류를 결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종류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대표항목을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로 사회경제적 상태가 편중되어 있는 한계점과 서비스 선택에 있어서 각 지역의 인프라 상황이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대상자의 특성과 선택된 서비스 종류는 일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이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한계점을 고려해야 하고, 위의 일차적인 분석을 통한 결과를 기초로 서비스 종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특성을 체계적인 모형을 개발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계적 검증을 거치는 작업의 진행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과 바람직한 서비스패키지 결정 모형을 개발하는 작업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